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진안군, 폐수배출시설 무단 배출 등... 7월 30일까지

진안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7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민간인을 포함한 2개반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업장의 폐수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폐수 유·무 등 불법

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과 무단배출 등 상습·고

의적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6건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8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행복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더하겠다”

오늘 황정수 무주군수 이임식

제44대 황정수 무주군수가 29일 오후 2시 전통문화의 집에서 진행되는 이임행사를 끝으로 민선6기 군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제44대 무주군수로 취임해 무주군정을 이끌어 온 황정수 군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지향하며 안으로는 소통하는 군수, 밖으로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로 인정 받아왔다.

지난 4년 간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위해 매진하며 △최소 육성성과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마을로 가는 축제 사계절 축제로 확대, △농·특산물대축제와 주말난장, 사이버장터,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통한 반딧불 농·특산물 2백억 매출 달성, △인재육성사관학교를 통한 기숙형 학습 지원, △안전취가 통학택시 운영, △무진장생활권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및 △버스단일요금제 시행,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무주가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등의 결실을 거뒀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는 △반딧불축제를 정부지정 대표축제의 반열 위에 올려놓은 일,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성지로서 태권도원의 위상을 높이



고 태권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키운 일 등이 꼽힌다.

실제로 오랜 숙원이었던 △태권도원진입도로로 확장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사업비 확보가 마무리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도 2020 완공을 목표로 곧 착공될 예정이다. △2017 무주대회 이후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지난 4월에는 ‘국기 태권도’가 법제화돼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외에도 △구)군수 관사를 6개 읍면 209세대 7백여 명의 다문화가족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교육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토록 한 것 등이 4년 내내 ‘정’을 강조하며 공감행정을 펼친 민선 6기 무주군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성과로 회자되고 있다.

황정수 군수는 “군민만 바라보며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미처 다 펼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지난 4년 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무주발전과 군민행복을 만드는 일에 마음과 역량을 더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안전교육 및 시연회 개최

무주군은 28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담당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해 무주 119안전센터 관계자로부터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요령부터 △물놀이 사고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제동기 사용 요령 등을 배웠으며 △익수자 구출 시연을 비롯한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근무 시 꼭 지켜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정수진 안전총괄담당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특별대책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6개 읍면 물놀이 담당 직원들과 유관기관 등으로 전담 TF팀을 확대·편성해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7대 진안군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제7대 진안군의회가 오는 30일자로 설 틈 없이 달려온 4년간의 진안군의회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제7대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진안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 7월 제211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제245회 임시회까지 총 35회의 회기동안 353건의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조례·규칙 및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총 610건의 군 주요 현안사항을 처리하면서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안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박명석 의장은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쉽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군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일들이 더 많았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며 “군민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4년이라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임기 후에도 어느 곳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군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축산농가, 든든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장수군은 각종 재해(화재)나 질병으로 인한 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보장대상은 가축을 비롯해 축사 시설물 등이다.

보험 가입은 NH농협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 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

가·등록한 농가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차주영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장수군 축산농가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반안면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장수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더욱 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반안면종합복지관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경주 지진과 제천 화재 등 최근 잇따른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고자 마련됐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적 항공기, 탄도 미사일에 의한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를 위한 시설이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비용인 가청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2018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모집

내달 10일까지 신청 2019년 12월까지 활동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를 20명을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진안군은 2018 진안홍삼축제 성공 개최와 효과적인 축제 홍보를 위해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를 20명을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홍보대사 참가자격은 홍삼축제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대외활동이 활발하여 다양한 홍보가 가능한 지역주민과 향우회원,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밴드, 블로그, 카페 등)운영자 등이다.

신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이메일(jso074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홍삼축제 홍보대사 활동기간은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여 기간으로 홍보대사증과 함께 자원봉사시간 인정(년 90시간), 홍삼축제 단체복 제공과 소정의 홍보용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홍삼축제 홍보대사 이외에도 홍삼축제추진위를 비롯하여 청소년기획단, 청소년특공대, 홍삼축제 해설사 등 지역주민이 진안홍삼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홍삼축제 관계자는 “군민과 향우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전 군민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 진안홍삼축제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홍보해주신 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홍삼축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홍보대사를 모집하게 된 만큼 열정 넘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민선6기 최용득 장수군수 임기 마무리

장수군 민선6기 최용득 장수군수는 4년간의 군정 업무를 마치고 별도의 이임식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1947년 장수군 천천면에서 태어



나 천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천농협장을 지냈으며, 제1대와 3대 장수군의회 의장을 거쳐 41대 장수군수에 당선된 후 2014년 제45대 장수군수로 역임하게 됐다.

특히 민선6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계남 양돈단지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016년에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4위로 장수군이 선정된 바도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문화재탐을 신설해 가야문화유적의 발굴과 복원에 집중 투자를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봉화산에서 전라북도 가야문화 선포식을 개최, 장수가야의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데 시발점을 만들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최용득 군수는 별다른 이임식 없이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통해 추억만 남기고, 임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자리를 떠났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GWON